

# 한자를 통해 본 중국 고대 漁獵

- 어렵 도구와 방법을 중심으로 -

박흥수\* · 고은미\*\*

## 目 录

1. 서언
2. 어렵 도구
3. 어렵 방법
4. 결어

## 1. 서언

본 연구는 중국 고대 漁獵<sup>1)</sup>에 관련된 한자 자형의 분석을 통해서 한자에 반영된 어렵의 문화적 의미를 찾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서 어렵 도구와 어렵 방법에 관련된 한자를 선정하여 문자학적으로 분석하고, 한자 안에 담긴 문화적인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한자는 漢語를 기록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상 교류 및 정보 전달이라는 기본 기능 외에 풍부한 문화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자는 表意性이 강한 문자이므로 매 한자마다 독특한 구조와 문화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sup>2)</sup> 沈兼士(1986)는 “현대 훈고학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의 한자의 해석은

\* 韓國外國語 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教授 parkhs@hufs.ac.kr

\*\* 韓國外國語 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博士課程 kum0521@hanmail.net

1) 본 연구에서 漁獵은 漁撈와 狩獵을 함께 지칭한다.

2) 박흥수 · 남중호(2001), 「漢字文化學試論」, 中國言語研究 第12輯, 182쪽.

바로 하나의 文化史라고 할 수 있다. 한자는 고대 중국인들이 甲骨·陶器·青銅器·簡帛에 남긴 活化石으로 이 活化石을 해 고대 문화를 연구하면 기타 출토 문물에 버금가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sup>3)</sup>고 하여 한자를 통한 문화 연구의 학문적 의의를 설명하였다.

인류 최초의 경제는 자연에만 의존하는 자원의 약탈 경제<sup>4)</sup>이다. 인류가 식량을 획득해 온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구석기 시대부터 중석기 시대에 걸친 수렵, 어로, 채집 생활이었다. 당시의 사람들은 산과 들에서 야생동물을 사냥하거나 강과 바닷가에서 조개 또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았으며, 야생식물이나 그 열매를 채집하여 먹었다.

한자에는 중화민족의 수 천 년 문명이 농축되어 있다. 인류 초기 문명인 어렵의 모습도 한자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한자의 자형과 자의 분석을 통해 고대 중국인들의 어렵 문화를 엿볼 수 있다.

李義活(2003)은 『甲骨文合集』狩獵 주요 卜辭 15편을 考釋하였는데, 이 考釋을 통해 商代 수렵 대상이 되는 동물, 수렵의 방식, 수렵의 성질 등 당시 수렵 문화를 파악할 수 있다. 李義活(2003)이 주로 갑골 복사를 근거로 하여 商代의 수렵 문화를 연구했다면 본 논문은 특별한 시대에 구애받지 않고 한자에 반영된 어로와 수렵 문화를 전체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劉志誠(1995), 許進雄(1995) 등의 선행 연구에서 고대 중국인들의 최초의 경제인 漁獵의 모습이 반영된 한자 중 구체적인 어렵 활동과 관련된 18자를 선정하였다. 어렵 활동의 내용을 어렵 도구와 방법으로 분류하여 자형과 자의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화적 의미를 고찰해 볼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이 어렵 활동에 관련된 문화를 고찰하는 것이므로 어렵 대상 관련 한자는 배제하였다.

자형과 자의의 분석은 『說文解字』를 위주로 하고 필요한 경우 『甲骨文字典』으로 보충하였다. 한자 자형은 『漢語古文字字形表』를 위주로 하였는데

3) 沈兼士(1986), 『沈兼士學術論文集』, 北京: 中華書局, 202쪽.

4) 약탈(foraging) 또는 식량수집(food collection)이라고 하는 야생의 동식물 자원을 얻는 식량획득 전략이다.





『新甲骨文編』과 『新金文編』을 사용하여 최근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드러난 고대인들의 보편적인 漁獵의 모습이 한자에 반영된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漁獵과 관련된 고대 중국인들의 생활양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2. 어렵 도구

원시 어렵의 도구로는 그물, 활과 화살, 그리고 특수 수렵 도구 등이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网, 弓, 矢, 射, 侯, 函, 單, 禽의 8개의 어렵 도구 관련 한자 자형의 분석을 통해 고대 어렵 도구의 구체적인 모습을 유추해보고, 이와 관련된 문화적 의미를 탐구해본다.

### (1) 网(그물 망, wǎng)

 白賓問 合口 10514	 戈a77甗 西周早期 集成797	 說文·网部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說文』에서 “网은 포희씨<sup>5)</sup>가 결승하여 물고기를 잡은 도구이다. 冂을 따르고, 아래는 그물이 교차되어 있는 형상이다. 网에 속하는 것은 모두 网을 따른다. 오늘날 경전에서 예번체인 𦉳이 되었다(网, 庖犧所結繩以漁。從冂,





5) 그물의 발명은 포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신석기 초기로 고고학 발견 시대와 근접하다. 포희씨는 복희씨로 불리기도 하는데 전설에 등장하는 상고시대의 帝王이며 중국인의 선조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물을 짜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과 가축을 기르는 방법을 가르쳤고, 사람들은 이때부터 수렵과 목축을 시작했다. (韓鑾堂(2005), 한자문화, 서울: 역락, 54-55쪽)

下象网交文。凡网之屬皆從网。今經典變隸作𦉳。)6)”라고 하였다. 『甲骨文字典』에서 “‘网’은 “그물의 형태이고, 동사로 사용되면 어망을 펼쳐서 수렵을 한다는 의미이다(网罟也, 用爲動詞, 張网捕獵之義)7)”라고 하였다.

자형을 보면 ‘网’은 그물의 모양을 본 떠 만든 글자이다. 어망의 모습으로 ‘그물’이라는 의미가 생겼고 ‘罔’이라고도 쓴다. 그물과 연관되는 한자는 대부분 이 글자를 부수자로 삼는다. ‘网’, ‘罔’, ‘網’은 고금자로 어렵의 도구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網’은 ‘罔’의 후기자로 어망을 만든 재료는 실(糸)처럼 길어야 하고 끊어지면 안 된다는 의미를 나타내준다. 새 그물 라(羅)는 어망을 만드는 재료인 실(糸)로 만든 그물(网)로 새(隹)를 잡는 형상이다. 고증에 따르면 당시 그물을 만든 끈의 원료는 칩과 같은 덩굴성 식물 섬유이다.8)

이를 종합해보면, ‘网’은 어렵 도구로 그물의 형태를 본 떠 만든 한자이다. 고대에는 덩굴성 식물과 같은 재료를 사용해 그물을 만들어 물고기와 같은 어류를 포획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류인 새도 잡는 등 수렵에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弓(활 궁, gōng)

 <p>賓組 SH 3046</p>	 <p>4 商·弓父庚貞(金)</p>	 <p>說文·弓部</p>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說文』에서 “‘弓’은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상형이다. 옛날에 揮9)가 弓을 만들었다(弓, 以近窮遠。象形。古者揮作弓。)10)”라고 하

6) 許慎(2013), 『說文解字』, 北京: 中華書局, 154쪽.  
 7) 徐中舒(1989), 『甲骨文字典』,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1065쪽.  
 8) 劉志成(1995), 『漢字與華夏文化』, 四川: 巴蜀書社, 144쪽.  
 9) ‘揮’를 구석기 중기 호모사피엔스로 보는 설도 있다. (劉志成(1995), 『漢字與華夏文化』,

였다. 『甲骨文字典』에서는 “활의 모양을 상형하였다. 갑골문 글자는 편방으로 쓰일 경우 매번 생략되어 彡가 되었고, 彡는 서주 금문과 자형이 동일하며, 이것은 『說文』이 근거로 삼은 자형이다(象弓形。甲骨文弓字偏旁每省作彡, 彡與西周金文形同, 是『說文』所本。)11)”라고 하였다.

『說文』에서는 『周禮』의 구절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弓자를 부연 설명하였다. “六弓이 있는데, 王弓과 弧弓은 갑옷이나 과녁에 쏘는데 쓰이는 활이고, 夾弓과 庾弓은 들개 가죽으로 만든 과녁이나 날짐승과 들짐승을 쏘는데 쓰이는 활이고, 唐弓과 大弓은 배우려는 자가 쏘는 활이다. 弓에 속하는 모든 것은 다 弓을 따른다(六弓: 王弓、弧弓以射甲革甚質; 夾弓、庾弓以射干侯鳥獸; 唐弓、大弓以授學射者。凡弓之屬皆從弓。)”라고 하였다. 『禮記·學記』에서는 “뛰어난 대장장이의 아들이 기술을 배우려면 가죽 옷을 만드는 기술부터 배워야 하고, 뛰어난 활 장인의 아들이 기술을 배우려면 삼태기 만드는 기술부터 배워야 한다(良冶之子, 必學爲裘; 良弓之子, 必學爲箕。)”라고 하였다. 활의 다양한 종류를 통해 활의 세분화와 활 장인의 존재를 통해 활 제작 기술의 전문화를 엿볼 수 있다.

‘弓’의 갑골문 자형은 상형자로서 완전한 활의 모습을 보여준다. 굴곡이 있는 왼쪽 선은 활 자루이고, 비교적 곧은 오른쪽 선은 활의 현이다. 활 자루 위에 있는 선은 활의 위쪽에 가는 선을 묶고 선의 또 다른 쪽은 화살의 꼬리에 묶어 활을 쏘고 나서 다시 화살을 거둘 수 있게 한 것을 나타낸다. 이런 활과 화살을 ‘弋(주살 익)’이라고 부르며, 주로 수렵 활동에 사용했다. ‘弓’자의 또 다른 갑골문 자형은 활 자루만 있고 현이 없다. 활과 화살은 대부분 대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箭(화살 전)’의 형방이 ‘竹’이다.

활과 화살은 원거리 사격무기로서 살상력이 매우 크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산서성 朔縣에서 구석기 시대의 돌화살을 발견, 중국에서 활과 화살을 사용한 역사가 적어도 28,000년에 이른다고 주장했다12).





145쪽)

10) 許慎(2013), 같은 책, 270쪽.

11) 徐中舒(1991), 같은 책, 1396쪽.

이를 종합해보면, ‘弓’은 대나무로 만든 활의 모습을 상형화한 것으로, 자형의 변천 과정에서 활의 현만 보이기도 하고, 활 전체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주나라 때는 활의 종류가 세분화 되어 있을 정도로 활쏘기 문화와 제작 기술이 발달하였으며, 활과 화살이 수렵 활동에 사용되는 도구였을 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전쟁의 무기로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矢(화살 시, shǐ)

 歷組 313	 2 商·矢觚(金)	 說文·矢部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說文』에서 “‘矢’란 ‘弓弩<sup>13)</sup>에 이용하는 화살이다. 入을 따르며, 화살촉과 깃의 모양을 상형했다. 옛날 夷牟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화살을 만들었다. 矢에 속하는 것은 다 矢를 따른다(矢, 弓弩矢也。從入, 象鏑栝羽之形。古者夷牟初作矢。凡矢之屬皆從矢。)<sup>14)</sup>”라고 하였다. 『甲骨文字典』에서도 동일하게 弓弩 화살의 형태(象弓弩矢形)로 보았으나, “『說文』에서 「從入」라고 하여 화살촉의 형태를 入로 잘못 여겼다(『說文』謂「從入」乃誤以鏑形爲入字)<sup>15)</sup>”라고 하면서 『說文』을 바로 잡았다. 弓弩에 이용하는 활과 화살은 고대 전쟁터에서 매우 큰 역할을 담당했고, 활과 화살로 적을 물리친 전투의 예도 매우 많았다.

‘矢’의 갑골문 자형을 보면 앞쪽 끝은 화살의 머리 부분을 나타내고, 아래의 교차된 두 선은 화살의 꼬리 깃털을 나타낸다. 화살의 꼬리 깃털은 화살대의

12) 韓鑒堂(2005), 같은 책, 258-259쪽.

13) 활에서 발전된 무기 노(弩)는 기계 활로 발사 속도는 느리지만 더 강한 화살을 날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4) 許慎(2013), 같은 책, 105쪽.





15) 徐中舒(1989), 같은 책, 581쪽.

균형을 잡는 기능을 하여 쏜 화살이 더욱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날도록 만든다.

고대 중국에서는 활쏘기가 매우 중시되었다. 공자의 시대에는 활쏘기를 “육예(六藝)<sup>16)</sup>”에 포함시켜, 국가를 위해 일하는 모든 남자는 반드시 할 줄 알아야 하는 여섯 가지 기능 중 하나로 여겼으며<sup>17)</sup>, 공자 자신도 고도로 예술적인 궁술 시합에 참가했었다는 사실을 『논어』는 증명하고 있다<sup>18)</sup>. 또한 전설에 따르면 활과 화살의 발명은 각기 다른 두 사람에게 의해 이루어졌으며, 화살은 표창(鏢槍)처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sup>19)</sup>.

이를 종합해보면, ‘矢’는 화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형한 글자로, 활과 화살은 수렵의 도구이자 전쟁의 도구인데, 화살은 단독으로도 어뢰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 육예 중 하나인 활쏘기 기술은 고대 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귀족들이 필수적으로 익혀야 할 기술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 (4) 射(쏠 사, shè)

 自賓問 合 10693	 5 西周中·靜簋(金)	 說文或體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說文』에서 “射’는 몸에서 弓弩가 발사되어 멀리 있는 물체에 적중한다(射, 弓弩發於身而中於遠也。從矢從身。)20)”라고 하였다. 『甲骨文字典』에서

16) 육예는 중국 주대에 행해지던 교육과목으로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 등 6종류의 기술이다. 예는 예용(禮容), 악은 음악, 사는 궁술(弓術), 어는 마술(馬術), 서는 서도(書道), 수는 수학(數學)이다. 이는 모든 귀족들이 통달했던 교양 과목이다. (나성 역(1996), 『중국 고대 사상의 세계』, 99쪽.)

17) 臧克和(1996), 『漢字文化總論』, 廣西: 廣西教育出版社, 46쪽.

18) “吾何執? 執御乎? 執射乎? 吾執御矣.” 「子罕」(나는 무엇을 잘해야 할까? 마차를 잘 몰아야 할까? 활쏘기를 잘해야 할까? 마차 모는 것을 잘해야겠다.)

19) 劉志成(1995), 같은 책, 145쪽.

20) 許慎(2013), 같은 책, 105쪽.





는 “활시위를 당겨서 화살을 겨눔으로써 쏜다는 의미를 나타내었다(象張弓注矢之形以會射義)<sup>21)</sup>”고 하였다. 『周禮·保氏』에는 “화살을 쏘는 것은 남자의 일이다(射者, 男子之事也.)”라는 구절이 있다.

‘射’자의 자형에 대한 해석은 정확하지 않지만 갑골문에서 활에 화살이 놓여 있는 모습으로 ‘화살을 쏘다’가 본래 의미가 된다. 卜辭에서 ‘射’는 화살로 짐승을 쏘아 잡는 수렵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 사용되기도 하고, 의미가 파생되어 ‘화살을 쏘는 사람’ 혹은 군사 조직의 하나인 ‘화살부대의 책임자’ 등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다<sup>22)</sup>. 卜辭에서 활을 이용하여 많은 짐승을 잡은 기록이 있는데 토끼나 사슴으로부터 큰 짐승인 호랑이까지 수렵하였다<sup>23)</sup>.

‘射’자는 중국에서 이미 자형 연계 분석을 통해 조상들의 활 숭배 의식을 나타낸다고 판정하였다. 자형을 보면 갑골문과 금문의 ‘射’는 활을 쏘는 행위에 대한 직관적 模寫이고, 소전에서 비로소 ‘身’과 ‘寸’의 자형으로 구성되어 身은 인간의 몸을, 寸은 방법의 정도를 나타내게 되었다<sup>24)</sup>.

이를 종합해보면, ‘射’는 자형상 활시위를 당겨 활을 쏘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화살을 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소전에서 사람의 몸을 나타내는 ‘身’과 ‘寸’이 결합한 모습을 보이는데, 중국인들은 이를 조상들의 활 숭배 심리를 반영한다고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侯(侯)(땅 이름 후, 제후 후, hóu)

 賓組 △ 6820	 3 商·侯甌(金)	 14 東漢·曹全碑(篆)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21) 徐中舒(1989), 같은 책, 582쪽.

22) 李義活(2003), 『『甲骨文合集』의 狩獵에 관한 主要卜辭 考釋』, 18쪽.

23) 李義活(2003), 『『甲骨文合集』의 狩獵에 관한 主要卜辭 考釋』, 23쪽.

24) 劉志基(1996), 『漢字與古代人生風俗』, 華東1師範大學出版社, 182쪽.

『說文』에서는 ‘侯(侯)’는 “봄에 鄉飲酒禮<sup>25)</sup>를 거행할 때 사용되는 과녁이다 (侯, 春饗所射侯也)<sup>26)</sup>”라고 하였다. 『甲骨文字典』에서는 “矢를 따르고, 厂을 따르는데, 厂은 과녁의 형태를 본 뜬 것으로, 화살이 그 아래에 모여 있으니 厂이 과녁인 것이 절로 드러난다(從矢從厂, 厂象射侯之形, 矢集其下, 則厂爲射侯自顯<sup>27)</sup>)”고 하였다.

자형을 통해서 ‘侯’의 본래 의미는 과녁으로, 길게 드리워진 가죽이나 베를 향하여 하나의 화살이 날아가는 것을 형상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詩·劑風·猗嗟』에 “종일 과녁에 활을 쏘았다(終日射侯)”라는 구절이 있다. 『小爾雅·廣器』에는 “활을 쏘 때 넓은 천을 侯라고 한다(射有張布謂之侯)”라는 구절이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侯’는 과녁에 화살이 꽂히는 모습을 상형한 것으로 화살을 통해 과녁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侯’의 자형과 관련 문헌을 통해 당시 활쏘기 연습이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한자 弓, 矢, 射와 동일하게 ‘侯’는 고대 활쏘기 문화를 보여주는 한자로 볼 수 있다.

(6) 函(함 함, hán)





 <p>黃組 合 37545</p>	 <p>5 西周晚·函皇父鼎(金)</p>	 <p>說文·馬部</p>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說文』에서 “函”는 혀이다. 상형자이고 弓을 따르며, 弓은 소리도 나타낸다. 혀의 모양이 弓이다. 속자 函은 肉과 舌을 따른다(函, 舌也。象形, 舌體

25) 고을의 선비들이 모여 읍양하는 절차(節次)를 지키어 술을 마시고 잔치하던 행사.  
 26) 許慎(2013), 같은 책, 105쪽.  
 27) 徐中舒(1989), 같은 책, 583쪽.

弓。從弓，弓亦聲。俗函從肉今<sup>28)</sup>”고 하였다. 이는 잘못된 해석으로 보여진다. 『甲骨文字典』에서는 “화살이 주머니 안에 담겨있는 형상으로 화살을 담은 것이다(象矢在囊橐之形，爲藏矢所用之函)<sup>29)</sup>”라고 하였다.

‘函’은 갑골문과 금문 자형에서 모두 화살을 담은 주머니이다. 본래 의미는 화살을 넣는 자루로 볼 수 있다. 王國維는 “고대에 화살을 넣는 통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모두 거꾸로 화살을 담았다. 쏠 때 사용하는 것을 ‘箛(전동복)’, 화살을 보관할 때 사용하는 것은 ‘函’이다(古者盛矢之器有二種，皆倒載之，射時所用者爲箛，藏矢所用者爲函)”라고 하였는데, 한(漢)대에 와서 ‘矢’가 거꾸로 된 형태의 하부가 점점 평평해지면서, ‘水’로 와면 되어 ‘函’가 되었다고 한다<sup>30)</sup>. 화살대는 많이 가지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화살자루가 필수적이다. 활과 화살의 발명은 수렵의 효과를 높였고, 이로 인해 어로와 수렵 경계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화살을 쏠 때 사용하는 화살 통을 상형화한 ‘箛’의 갑골문과 금문의 자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商·鐵 2.4 (甲)	5 西周晚·番生簋 (金)	說文·竹部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이를 종합해보면, ‘函’은 화살이 주머니 안에 담겨 있는 형상으로 화살 통 혹은 화살 자루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활과 화살은 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휴대하고 다녔던 중요한 수렵 도구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활과 화살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 용도에 따라 화살 통의 종류도 세분화되었는데 ‘函’과 ‘箛’의 자형을 통해 그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28) 許慎(2013), 같은 책, 139쪽.

29) 徐中舒(1989), 같은 책, 756쪽.

30) 季旭昇(2004), 『說文新證(上)』, 藝文出版社, 560쪽.

## (7) 單(홀 단, dān)

	無名組 合 30276			
갑골문		8春秋·奚單匱(金)	說文·卍部	
		금문	소전	해서

『說文』에서 “單’은 大이다. 卍를 따르고, 紅을 따른다. 卍는 소리도 나타낸다(單, 大也。從卍、紅, 卍亦聲。)31)”고 하였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으로 보여진다. ‘單’에 관해서는 유력한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날짐승을 잡는 도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單과 干은 고금자로 병기 중 하나인 방패의 형상이라는 것이다. 후자의 설은 單의 본래 의미는 방패로, 후에 ‘弓’을 첨가하여 ‘彈’이 되었다32)고 주장한다. 『甲骨文字典』에서는 이 글자의 “초기 형태를 짐승을 잡는 干으로 보았는데(初形應象捕獸之干), 나중에는 두 갈래로 나 있는 나무 가지 끝에 돌창을 묶은 卍가 되었다(後於兩歧之端縛石塊而成卍). 두 갈래를 묶은 아래를 실로 매어 단단하게 하여 짐차 卍의 형태가 되었다(更於岐下縛以繩索, 使之牢固, 遂成卍形)33)”고 하였다. 갑골문 卜辭에 보면 南單, 西單, 東單이 등장하는데 이는 지역명으로 가차 의미이다34).

최근 朴錫弘(2014)은 갑골문에서의 ‘單’의 형태를 ‘사냥돌 기원설’에서 찾았다. 이는 Cecillia(2002:112)의 주장으로 중국 학계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설인데, 중국 및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냥돌 관련 실물자료와 문화 자료에 의거해 ‘單’의 형체에 대해 연구한 결과이다35). 사냥돌은 목표물의 다리를 향해 투척하여 움직임을 못하게 한 후 포획을 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사냥돌은 그 크기나 무게를 통해 볼 때 사냥 대상이 주로 큰 짐승을 포

31) 許慎(2013), 같은 책, 2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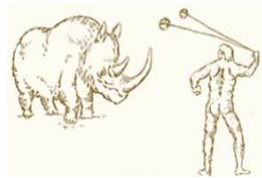
32) 馬如森(2007), 『殷墟甲骨文』, 上海大學出版社, 237쪽.

33) 徐中舒(1989), 같은 책, 1534쪽.

34) 徐中舒(1989), 같은 책, 120쪽.





35) 朴錫弘(2014), 「갑골문 ‘單’의 형체 기원 고찰」, 『中國文化研究』第57輯, 233쪽.

획하기 위한 사냥도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사냥돌과 함께 발견된 동물 뼈들 중 상당수가 야생말이나 털 코뿔소, 영양 등과 같이 덩치가 큰 짐승의 것이라는 점도 이 사실을 뒷받침해준다<sup>36)</sup>. [그림1]과 [그림2]는 사냥돌 기원설에 근거한 ‘單’의 모습이다.

[그림 1]<sup>37)</sup>[그림 2]<sup>38)</sup>

이를 종합해보면, ‘單’은 수렵도구의 모습으로, 일반적으로 두 갈래로 난 나무 막대기에 돌창을 묶은 형태의 날짐승 수렵도구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서양의 연구에 의하면, 큰 짐승을 포획하기 위한 도구인 사냥돌로 보는 설도 있다. ‘單’의 자형 변천과 ‘單’을 부수자로 하는 한자 ‘獸’에서 견(犬)과 같이 출현하는 것 등 자형을 근거로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수렵의 도구로 보는 견해가 더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 (8) 禽(새 금, qín)

	賓組 合 10349		5 周早·禽簋(金)		說文·内部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說文』에서 “禽은 들짐승의 총칭이다. 禽, 離, 甝의 머리 부분은 유사하다(禽

36) 朴錫弘(2014), 같은 글, 238쪽.

37) ([www.sjnmuseum.go.kr](http://www.sjnmuseum.go.kr))(석장리 박물관)

38) ([www.flight-toys.com/bolas.htm](http://www.flight-toys.com/bolas.htm)(238))

也, 走獸總名。禽、離、兕頭相似。)39)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해석으로 보여 진다. 『甲骨文字典』에서 ‘禽’은 “그물망이 있는 긴 손잡이를 상형한 것으로 조류와 짐승을 덮어서 잡는 수렵도구이다. 후에 성부(聲符)인 ‘今’이 첨가되어, 점차 『說文』의 소전체인 禽자가 되었다(象長柄有網以覆鳥獸之狩獵工具, 後加聲符今遂爲『說文』篆文之禽)40)고 하였다. ‘禽’은 ‘擒’자의 초문이다. 여기서 의미가 파생되어 포획한 동물 역시 ‘禽’이라고 한다. 『爾雅·釋鳥』에서 “발이 두 개이고, 깃털이 있는 짐승을 禽이라하고, 발이 네 개이며 털이 있는 짐승을 獸라고 한다(二足而羽謂之禽, 四足而毛謂之獸.)41)”라고 하였다.

‘禽’의 갑골문 자형을 보면, 발이 두 개이며 깃털이 있는 짐승인 조류가 아니고 새를 잡는 망(그물)이다. 이 ‘禽’자의 자형을 통해 고대에 망(그물)을 사용해서 새를 잡는 풍습이 일찍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42).

‘禽’은 최초의 의미인 ‘수렵도구’에서 ‘잡다. 포획하다’로, 가장 나중에 포획한 ‘짐승’으로 의미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상고 중국어에서 ‘禽’은 짐승의 총칭인데, 이 글자는 부수가 ‘宀’을 따르며, 이는 짐승의 발톱을 의미한다. 고대인들은 짐승의 발톱에 가장 민감해서 짐승의 발톱이나 새의 발자국을 통해서 짐승의 종류와 종적을 파악하여 맹수를 피하고, 음식을 획득했다. ‘禽’은 짐승의 총칭으로 원시시대에는 들짐승과 날짐승의 구분이 없이 단순하게 인간과 동물 전체를 대립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禽’과 ‘獸’의 분리는 인간이 동물에 대해 분류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자학적 해석이 가능하다. “禽”과 “擒”은 同源이고, “獸”과 “狩”는 同源인데, 이것은 언어에서 ‘禽’과 ‘獸’의 분명한 대립을 의미하는데, 당시 중원은 여전히 수렵의 시기였고, 조리하는 음식의 원료는 야생동물이 주가 되었다. 이후에 ‘獸’는 ‘畜’를 탄생시켰다. ‘畜’의 ‘宀’은 ‘생겨나고 누적 된다’는 의미이고, ‘田’은 ‘밭에서 수렵하다’는 의미이다. ‘畜’은 ‘밭에 사냥감이 쌓인 것’이다. 이 글자의 발생은 인류가

39) 許慎(2013), 같은 책, 309쪽.

40) 徐中舒(1989), 같은 책, 1532쪽.

41) 이충구 외 역(2004), 『爾雅注疏 5』, 서울: 소명출판, 390쪽.

42) 李萬春(1992), 『漢字與民俗』, 雲南: 雲南教育出版社., 10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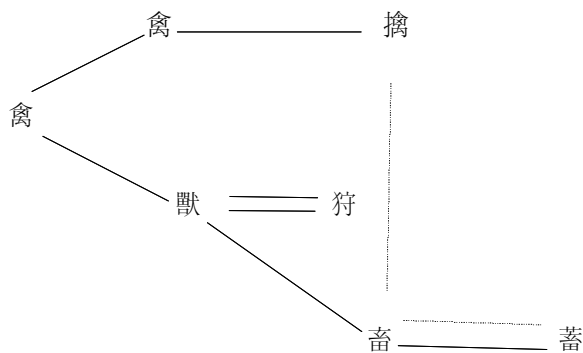
단순히 짐승을 포획하는 것을 넘어서도 기를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축과 수렵의 병존은 조리역사상 원료를 획득하는 큰 진보가 되었다. 이 한자의 파생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시킬 수 있다<sup>43)</sup>. ‘禽’과 ‘獸’가 분리된 이후에 ‘禽’의 의미는 축소되어서 날짐승만 가리키게 되었다. 그 후, ‘獸’가 ‘畜’을 만들어 내면서 다시 ‘蓄’을 분화시켰는데 그 안에는 날짐승도 포함된다. 이는 인류가 육식재료를 획득한 발전 과정을 보여 준다<sup>44)</sup>.

이를 종합해보면, ‘禽’은 긴 손잡이를 가진 그물망을 상형한 것으로 날짐승을 포획하는 수렵 도구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禽’은 여러 차례 의미 파생 과정을 거친 한자로 ‘수렵 도구’에서 ‘짐승’으로, 현재에는 ‘날짐승’만을 가리키게 되었다. ‘禽’의 의미 파생 과정은 인류 진화에 따른 중국인들의 사물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 3. 어렵 방법

본 장에서는 어렵 방법과 관련된 한자 漁, 隹, 隹, 隹, 獸, 逐, 敢, 離, 隸, 隹





43)



44) 王寧 等(2000), 『說文解字』與古代文化, 沈陽: 遼寧人民出版社, 110-111쪽.

의 10자의 자형 분석을 통해 한자에 담긴 문화적 의미를 탐구해본다. 어렵의 방법을 나타내는 한자 자형에는 대부분 어렵 대상과 어렵 도구의 형태가 동시에 출현하여 구체적인 어렵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게 해 준다.

(1) 漁(고기 잡을 어, yú)




 寶組 소 13723	 6 商·魚簋(金)	 說文·蠡部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說文』에서 “漁’는 물고기를 잡는다는 의미로 水와 蠡를 따른다. 소전에서 漁는 蠡로 魚를 따른다(漁, 捕魚也。從蠡, 從水。漁, 篆文漁從魚。)45)”라고 하였다. 『甲骨文字典』에서도 ‘漁’를 “물고기를 잡는 것(捕魚也)46)”으로 보았다. 현재 ‘漁’는 ‘水’와 ‘魚’로 구성된 형성자이지만, 갑골문에서는 여러 개의 자형을 가진 회의자였다. 갑골문의 ‘漁’자를 보면 인류 초기 포획 활동 방식을 알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3천 년 전 商代에 이미 물고기가 사람들의 중요한 음식물이었고, 어업이 보편적인 생산 활동이었다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고고학에서는 10만 년 전에 山西 丁村人 유적지에서 물고기 두개골 화석이 발견되었고, 2만 7천 년 전의 산꼭대기와 동굴의 유적지에서 출토된 청어(靑魚)의 눈자위 뼈 화석으로 추산해볼 때 이 청어는 길이가 80cm이고 무게는 7~8kg 이었다47)고 하는데, 이렇게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고도의 어업 기술이 필요했을 것이다. 아래의 자형을 통해 당시 어업 기술 즉, 다양한 어로의 방식을 엿볼 수 있다.

45) 許慎(2013), 같은 책, 245쪽.

46) 徐中舒(1989), 같은 책, 1257쪽.

47) 劉志誠(1995), 같은 책, 144쪽.

 7 周中·遯簋〈金〉	 1 商·寧滬 1.331(甲)	 4 商·後 2.35.1 (甲)
손으로 잡는 형상	낚시로 잡는 형상	그물로 잡는 형상

비교적 이른 시기의 사람들은 물을 얻기 쉬운 산언덕, 강가에 거주했고 어로는 생활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였다. 양소문화<sup>48)</sup> 유적지는 내지 깊숙한 곳이었으나 하류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양소문화 도기 위의 물고기류는 다른 종류의 동물보다 무늬가 많다. 후대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강가나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살게 되었다. 본래 쉽게 얻을 수 있었던 물고기가 점점 먹기 어려운 진귀한 음식이 되었다<sup>49)</sup>.





이를 종합해보면, ‘漁’는 ‘물고기를 잡는다’는 의미로 인류 초기 어업 활동 방식을 나타내는 한자로 볼 수 있다. 현재의 ‘水’변이 있는 자형은 소전에서 확정된 것이다. 관련 자형을 통해 살펴본 고대 다양한 어로의 방식을 통해, 강가나 해안 생활에서의 보편적인 어업 활동의 모습을 알 수 있었고, 손을 이용한 어업에서 도구를 이용한 어업으로 어업 기술이 점차 진화하고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갑골문의 ‘漁’, ‘魚’, ‘網’, ‘魯’와 같은 한자를 통해 3천 년 전의 상대에 이미 어업 생산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2) 隻(마리 척, zhī)

『說文』에서 “隻”은 “들짐승의 총칭이다. 禽, 離, 甝는 머리가 비슷하다(隻,





48) 중국 신석기 시대의 문화. 1921년 안데르손에 의하여 허난성 먼지현 양소촌에서 발견됨. 채도(彩陶)를 수반하는 문화로서 산시성(陝西省)과 허난성(河南省)을 중심으로 황하(黃河)의 중류역에서부터 산시성과 간쑤성(甘肅省)까지 걸쳐짐. 농경을 생산 기반으로 하여 가축의 사육과 수렵도 행하여졌음. 양소문화 [仰韶文化, Yangshao] (미술대사전(용어편), 1998, 한국사전연구소)

49) 許進雄(1995), 『中國古代社會』,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54-55쪽.

 實組 상문 11538	 隹	 隹 說文·隹部	 隹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走獸總名。禽、離、兕頭相似。)50)”라고 하였다. ‘隹’은 새를 의미하는 ‘隹’와 손 모양인 ‘又’를 합친 모양이다. “새 한 마리를 잡으면 ‘隹’라고 하고, 두 마리를 잡으면 ‘雙’라고 한다(隹, 鳥一枚也。從又持隹。持一隹曰隹, 二隹曰雙。)51)”고 했다. 『甲骨文字典』에서 ‘隹’은 “손에 새를 잡고 있는 형상과 같으며, ‘獲’의 初文으로 『說文』에서 ‘隹’를 새 한 마리다’라고 한 것은 나중에 생겨난 의미이다(象捕鳥在手之形, 即獲之初文, 『說文』「隹, 鳥一枚也」乃後起義.)”라고 하였다.

갑골문에서는 ‘얻다(獲)’는 의미로 사용했는데, 날아다니는 새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은 새를 잡아 얻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두 마리와 손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쌍(雙)은 두 마리 새를 한 손에 쥐고 있다는 의미이다52). 후기자 ‘獲’의 자형은 아래와 같다.

 白組 상문 20781	 獲	 獲 說文·犬部	 獲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說文』에서 “‘獲’는 사냥하여 얻는 것이다. 犬를 따르고, 獲의 소리를 따른다(獲, 獵所獲也。從犬獲聲.)”라고 하였다. ‘隹’의 후기자이다. 『易經·解

50) 許慎(2013), 같은 책, 70쪽.

51) 許慎(2013), 같은 책, 70쪽.



52) 신영자(2011), 같은 책, 43쪽

卦·九二』에서는 “여우 세 마리를 포획 하였다. 털이 누린 것을 얻었으니, 길 하도다 (田獲三狐, 得黃矢, 貞吉。)”라고 하였다. 『孟子·滕文公下』에서는 “종일 날짐승 한 마리 잡지 못하였다 (終日而不獲一禽。)”라고 하였고, 『呂氏春秋·不苟論·貴當』에서는 “수렵하여 잡은 것이 항상 타인보다 많다(田獵之獲, 常過人矣。)”라고 하여, ‘獲’을 ‘잡다, “포획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다.

『文選·司馬相如·上林賦』에서는 “국가의 정치를 잊고 꿩과 토끼의 포획을 탐하는 것은 인자가 힘쓰지 않는다(忘國家之政, 貪雉兔之獲, 則仁者不繇也。)”라고 하여 역시 ‘獲’를 ‘포획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갑골문과 금문에서 ‘隹’는 손으로 새를 잡고 있는 형상으로 이 자형을 통해 조류가 포획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기자인 ‘獲’는 ‘犬’변이 추가되어 ‘(수렵하여) 얻다, 포획하다’라는 의미가 되었고, 초문인 ‘隹’는 동물을 세는 양사 ‘마리’를 나타내는 파생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 (3) 隹(어리 조, zhào)

			
갑골문	금문	說文·隹部 소전	해서

『說文』에서 “‘隹’는 새를 덮어서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网을 따르고, 隹를 따른다(隹, 覆鳥令不飛走也。從网隹)<sup>53)</sup>”라고 하였다. 『甲骨文字典』에서는 “새(隹)가 그물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물을 사용해서 조류를 덮어서 그것을 잡는 것을 상형하였다(隹在网下, 象以網籠罩鳥類而擒之形)<sup>54)</sup>”고

53) 許慎(2013), 같은 책, 71쪽.





54) 徐中舒(1989), 같은 책, 399쪽.

하였다. 王筠은 “물고기를 잡는 것을 罩, 새를 덮는 것을 罝라고 한다 (捕魚爲罩, 覆鳥爲罝)<sup>55)</sup>”고 하였다.

‘罝’의 자형은 그물로 새를 덮는 것을 상형한 것이다. 물고기뿐만 아니라 조류도 그물을 사용해서 포획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류는 매우 일찍부터 포획의 대상이 되었으나 그 이익과 가치가 동물보다 훨씬 적고 또한 쉽게 포획할 수 없어서 극히 드물게 수렵했다. 새는 아름다운 깃털을 제외하고 큰 경제적 가치가 없어서 큰 새일 경우는 권세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罝’는 ‘그물(罟)’을 사용해서 ‘새(隹)’를 잡는 모습으로 당시 그물을 사용해서 조류를 포획하는 방식을 엿볼 수 있고, 그물이 어렵의 보편적인 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罝’는 새의 수렵은 나타내는 한자이나 경제적 가치가 적어서 새의 수렵은 드물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阱(阱)(함정 정, jǐng)

			
갑골문	금문	소전 說文·井部	해서

『說文』에서 “‘阱’은 함정이다. 阜와 井을 따르며 井은 소리도 나타낸다. 阱, 阱은 穴을 따르고, 隹는 고문 阱으로 水를 따른다(阱, 陷也。從阜從井, 井亦聲。隹, 阱或從穴。隹, 古文阱從水。)56)”라고 하였다. 『甲骨文字典』에서도 “짐승이 함정에 빠진 모습(象陷獸於阱之形)”이라고 하였다<sup>57)</sup>. 이 한자는 ‘鹿’과 ‘井’이 결합하여 사슴이 함정에 빠진 모양을 상형한 것이다. 갑골문은 ‘鹿’자를 결합하여 포획 대상을 강조하였고, 금문과 소전은 ‘阜’자를 결합하여

55)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1993), 『漢語大字典』, 四川: 胡北辭書出版社, 2921쪽.

56) 許慎(2013), 같은 책, 101쪽.

57) 徐中舒(1989), 같은 책, 555쪽.

함정이 설치된 장소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다르나 나타내는 의미인 ‘함정’은 동일하다. ‘阱’의 자형에서 드러난 함정은 수렵의 일종으로 들짐승들이 습관적으로 걸어 다니는 길에 파 놓고 그 위를 위장한 뒤 짐승들을 함정으로 몰아서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다. 또는 사람들이 산의 삼면을 에워싼 후 함성을 지르면서, 한 쪽 면을 남겨두고서 함정의 방향으로 짐승을 몰아서 포획하였다<sup>58)</sup>. 于省吾는 『甲骨文釋林』에서 이 글자는 『甲骨文』에서 ‘陷人’, ‘陷鹿’, ‘陷麓’을 나타내는 각기 서로 다른 글자가 있었으나, 소전에 와서 ‘陷’으로 통일되었다고 하였다. 아울러 과거 학자들은 사람이 함정에 빠지는 것만 ‘陷’으로 보고 사슴이나 코끼리가 함정에 빠지는 것을 ‘阱’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하였다<sup>59)</sup>.

이를 종합해보면, ‘阱’은 짐승이 함정에 빠진 모습을 나타내는 한자로, 이 한자를 통해서 함정을 파서 들짐승을 포획하는 고대 수렵의 방식을 엿볼 수 있다. ‘阱’을 ‘鹿’과 ‘井’의 결합으로 본 갑골문의 해석을 통해 사슴<sup>60)</sup>이 주요 함정 수렵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도 유추할 수 있다.





#### (5) 獸(짐승 수, shòu)

『說文』에서 “수(獸)는 “수비(守備)하는 것이다. 뿔을 따르고, 犬를 따른다(獸, 守備者。從畀, 從犬。)<sup>61)</sup>”라고 하였다. 이는 잘못된 해석으로 보여 진

58) 劉志誠(1995), 『漢字與華夏文化』, 51쪽.

59) 李義活(2003), 같은 글, 441쪽.

60) 사슴의 가죽, 뿔, 뼈, 고기는 모두 이용의 가치가 있다. 商代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사슴의 뿔은 여전히 아름다움과 장식용도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商代에 사슴을 잡는 것은 가죽, 뿔, 고기 이외에 더 중요한 경제적 목적이 있었다. 사슴류는 무리 행동을 좋아한다. 사슴이 노닐고 먹는 장소가 사람들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이다. 그 활동은 농작물의 성장을 방해했고, 농민들은 포획을 하여 그 피해를 막았다. 『春秋』魯莊公 17년에 많은 사슴이 재난을 입은 기록이 있고, 『禮記·月令』에는 “음력 4월에 짐승을 몰아내 오곡을 해치지 못하게 했다. 이는 경작지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였다.”라고 했다. 쫓아낸 짐승의 주요 대상은 사슴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商周시기 사냥하는 일을 ‘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許進雄(1995), 같은 책, 54쪽)

 寶組 合 10587	 辛甫卣 商代晚期 集成5395	 說文·獸部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다. 『甲骨文字典』에서는 ‘獸’와 ‘狩’를 한 글자로 보았고, 후에 두 글자로 분화 되었다고 본다. 羅振玉은 “갑골문 卜辭에서 ‘獸’자는 ‘單’에서 나왔고, ‘獸’는 ‘狩’의 본자이다. 征戰의 戰은 單을 따르고 이것은 獸와 같은 의미이다(占辭中 獸字從此, 獸卽狩之本字; 征戰之戰從單蓋與獸同意)”라고 하였다<sup>62)</sup>.

‘狩’는 ‘獸’의 후기자로 형성자인데, 『說文』에서 “‘狩’는 “개를 데리고 수렵 하는 것이다. 犬을 따르고, 守는 소리이다(狩, 犬田也, 從犬守聲)<sup>63)</sup>”라고 하였다. 갑골문과 금문의 자형을 살펴보면 ‘짐승’을 나타내는 수(獸)는 동물을 잡는 도구인 구(單)<sup>64)</sup>와 개(犬)가 그려져 있다. 이 둘은 사냥을 하는데 꼭 필요한 도구이므로 ‘수렵’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爾雅·釋鳥』에서 “발이 넷이면서 몸에 털이 있는 것을 獸라 한다(四足而毛謂之獸)”고 하였다<sup>65)</sup>. 이처럼 ‘獸’는 오늘날 사냥을 통하여 획득한 들짐승을 가리키는 의미도 있는데 이는 과생의미로 볼 수 있다<sup>66)</sup>.

이 자형을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갑골문 왼쪽의 單은 干인데, 干은 盾과 이름은 다른데 실재는 동일하다<sup>67)</sup>. 어음상 盾과 單은 쌍성의 관계이고, 盾과

61) 許慎(2013), 같은 책, 309쪽.

62) 季旭昇(2004), 같은 책, 93쪽.

63) 許慎(2013), 같은 책, 204쪽.

64) 본 논문 어렵 도구 7)번 한자 ‘單’의 갑골문, 금문 자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5) 이충구 외(2004), 같은 책, 390쪽.





66) 徐中舒(1989), 같은 책, 1534쪽.

67) 갑골문 ‘單’을 무기의 일종인 ‘干’ 또는 ‘盾’과 형체·의미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자라 여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單’은 ‘干’ 또는 ‘盾’의 일반적 형상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으므로, 이 설이 신빙성을 얻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자 자료와 실증적 유물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朴錫弘, (2014), 같은 글, 233쪽)

干은 첩운의 관계이다. 盾과 單, 單과 干은 음이 가깝고 의미가 통한다. 고문자 자형을 봤을 때 單과 干은 한 자로 모두 방패의 형상이다<sup>68)</sup>. 오른쪽은 犬인데 두 자형을 합치면 새로운 의미가 생겨나는데 수렵하는 사람이 방패를 들고 몸을 가리고, 사냥개가 앞 뒤 혹은 왼쪽 오른쪽에서 주인을 따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대에 이미 개를 데리고 수렵하는 풍속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이를 종합하면, ‘獸’에서 ‘單’ 부분을 수렵도구 혹은 방패로 보는 설 두 가지가 있으나, 개(犬)를 동반하여 도구(수렵도구 혹은 방패)를 들고 수렵하는 모습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소전에서 자형이 확정되어 지금의 해서체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 逐(쫓을 축, zhú)

			
寶組 小 5394 反		說文·辵部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說文』에서 “逐은 뒤쫓는 것이다. 辵을 따르고, 豚의 생략형을 따른다(逐, 追也。從辵, 從豚省。)69)”라고 하였다. 『甲骨文字典』에서도 “짐승을 뒤쫓고 있는 형상이다(從趾於獸後以會追逐之意, 所從之獸)70)”라고 하였다. 『易·睽』에서 “말을 잃고도 뒤쫓지 않았다(喪馬勿逐。)라고 하였다. 즉, ‘逐’의 본래 의미는 ‘뒤쫓다’라고 볼 수 있다. 글자의 윗부분은 한 마리의 돼지이고, 아랫부분은 사람의 발이다. 이 자형은 야생 돼지 한 마리가 도망가고 사냥꾼이 바짝 뒤쫓는 장면을 상형한 것으로 사냥꾼이 야생 동물을 뒤쫓아 가서 잡는

68) 李萬春(1992), 같은 책, 109쪽.

69) 許慎(2013), 같은 책, 35쪽.





70) 徐中舒(1989), 같은 책, 45쪽.

다는 의미이다. 이 외에도 『甲骨文』에는 동물 수렵을 묘사한 글자가 많다. 손에 나무 몽둥이를 들고 맞은편에서 야생돼지를 잡는 ‘敢<sup>71)</sup>’자가 있고, 야생 돼지를 뒤쫓아 가서 함정에 빠뜨리는 글자인 ‘墜(隙 『說文·土部』)’도 있다.

『小屯南地甲骨考釋』에서 卜辭의 逐은 후세의 追逐의 의미와는 달리, 일종의 구체적인 수렵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 보았다. ‘追’의 대상은 사람이고, ‘逐’의 대상은 짐승이라고 하여, ‘逐’을 짐승을 포위하여 잡는 수렵의 방법(圍獵)으로 보았는데, 圍獵인 경우 일반적으로 3면을 포위하였다<sup>72)</sup>고 한다. 갑골문에서는 초기에 사람들이 수렵한 사슴, 돼지, 호랑이, 곰, 개, 토끼, 쥐, 새 등의 동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갑골문에 동물을 묘사한 글자가 많다는 것은 고대인과 동물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해준다. 동물 수렵은 초기인류의 가장 중요한 생산 활동이었다. 당시는 야생동물의 수렵이 생활의 주요 공급원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逐’은 돼지를 뒤쫓는 모습으로 수렵의 방법 중 짐승을 포위하여 수렵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한자로 볼 수 있다. ‘逐’은 짐승을 추격하여 포위하는 대규모 수렵의 일종이다. 아울러 동물 중에 돼지가 자형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 돼지가 포획의 대상이 되는 보편적인 동물임을 알 수 있고, 수렵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 멧돼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7) 敢(감히 감, gǎn)

			
2 商·前6.12.5 (甲) 갑골문	9 西周早·虢鼎(金) 금문	說文·辵部 소전	해서

『說文』에서는 “敢은 앞으로 나아가서 취하다(敢, 進取也)<sup>73)</sup>”라고 해석하였는데, 이는 파생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 『甲骨文字典』에서는 “두 손으로 干

71) ‘敢’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다.

72) 李義活(2003), 같은 글, 15쪽.

73) 許慎(2013), 같은 책, 79쪽.

을 쥐고 돼지를 찌르는 형상(象雙手持干刺豕形<sup>74</sup>)”으로 보았다. 돼지를 잡으려면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본래 의미는 ‘용감하다’이다. 『廣雅』에서 “敢은 용감한 것이다(敢, 勇也.)”라고 하였다.

자형을 보면 손에 끝이 갈라진 나무 몽둥이를 들고 돼지와 직면해 있는 모양을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형세는 대체로 락과(珞巴)<sup>75</sup>인들이 호랑이를 포획할 때 시작하는 상황과 비슷하다. 우두머리 사냥꾼은 짐승을 사냥할 때 끝이 갈라진 나무 몽둥이를 들고서 용감하게 얼굴을 위로 쳐들면서 멧돼지를 찌르고 때린다. 금문에서 ‘敢’자는 ‘單’자를 생략하여 ‘口’자로 썼고, 소전에서는 거꾸로 된 돼지를 ‘爪’자로, ‘口’자를 ‘古’자로 와변 되었기 때문에 『說文』에서의 자형 분석은 잘못되었다<sup>76</sup>). 주나라 초문에는 中자가 口로 생략되었고, 卩이 又로 생략되었다. 서주 초기 口가 甘으로 형성화되었고, 다시 초문으로 변화하였는데, 이것은 소전 자형의 유래이다. 전국 문자의 敢자는 자형의 변화가 비교적 많은데 口형이 그 위의 필획과 결합하여 古형이 되었다<sup>77</sup>).

이를 종합해보면, ‘敢’의 자형은 수렵의 방식을 보여주는 한자로 손으로 도구를 들고 돼지를 찌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수렵 활동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한자로 볼 수 있다. ‘敢’도 ‘逐’와 마찬가지로 자형 분석을 보면 수렵 대상이 돼지이다. 돼지를 쫓아가서 포위하고 결국 찌르는 일련의 돼지 수렵 과정을 보여준다.

(8) 隸(逮)(미칠 이, dài)




『說文』에서는 “隸’는 미치다, 又를 따르고 尾의 생략형을 따른다. 손으로 꼬리는 잡는 것으로 뒤에서 그것을 잡는 것이다(隸, 及也, 從又從尾省, 又持尾

74) 徐中舒(1989), 같은 책, 457쪽.

75) 중국 西藏[티베트] 자치구의 남동부 지방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으로 한자로 낙파족(珞巴族)이라고 표기한다. 인구는 2,965명(2000)이다.

76) 劉誌誠(1995), 같은 책, 146쪽.



77) 季旭昇(2004), 같은 책(上) 323쪽.

			
	1 春秋晚·郟鐘《金》	說文·隶部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者, 從後及之也)78)”라고 하였다. 금문 ‘隶’자는 손으로 동물의 꼬리를 잡은 모습을 그린 것이다. 금문의 𠄎는 ‘尾’의 初文이다. 즉, 손으로 동물의 꼬리를 잡은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隶’는 ‘逮’의 初文이다.

이를 종합하면, ‘隶’는 짐승의 꼬리 잡아서 포획하는 활동을 나타내는 글자로 볼 수 있는데, 오늘날은 후기자 ‘逮’자를 사용하며 의미가 확대되어, 이르다(及, 及至), 잡다, 체포하다(逮捕)등의 의미79)로 사용된다.

(9) 離(떠날 리, li)

			
2 商·父乙尊(甲)		11 西漢·馬·老子甲後334(篆)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說文』에서 “離는 黃倉庚이다. 울면 누에가 생겨난다(누에를 칠 시기이다). 隹를 따르고 離는 소리이다(離, 黃倉庚也. 鳴則蠶生. 從隹离聲。)80)”라고 하였다. 『說文』에서 ‘離’를 새로 보았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으로 보여진다. 『甲骨文字典』에서 이 글자는 “손잡이가 있는 수렵 도구(𠄎)에 새가 잡힌 형상을 나타내는데, 𠄎는 수렵 도구로 離의 본래 의미는 𠄎를 사용하여 새를 잡는 것이다(象鳥罹於𠄎之形, 𠄎爲捕獵工具, 故離之本義爲以𠄎捕鳥)”라고

78) 許慎(2013), 같은 책, 34쪽.

79)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1993), 같은 책, 3854쪽.





80) 許慎(2013), 같은 책, 71쪽.

하였다. 덧붙여서 ‘離’는 “갑골문 卜辭에서 ‘포획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단지 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卜辭用離爲擒獲之義, 則不僅爲鳥也)<sup>81)</sup>”라고 하였다.

갑골문의 자형을 보면 수렵 도구 안에 새가 잡힌 형상이므로 “잡다”라는 의미로 본다. 서주 금문에서는 ‘離’자는 보이지 않는다. 전국 시대의 ‘罽’자가 형태를 갖추면서 ‘離’가 되어 從隹離聲의 형성자가 되었다. 馬王堆<sup>82)</sup>에서 ‘離’는 ‘隹’뒤에 ‘艸’가 있는데 이는 비교적 오래된 자형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離’는 수렵 도구를 통한 새의 수렵을 상형화한 한자로, 수렵 도구인 손잡이가 있는 그물에 새가 잡힌 형상에서 ‘잡다’라는 의미로 파생이 이루어졌고, 오늘날에 상용되는 ‘분리하다’라는 의미는 가차 의미임을 알 수 있다.

(10) 焚(焚)(불사를 분, fén)

 賓組 △ 10681	 4 周晚·多友鼎(金)	 7 魏受禪表(篆)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說文』에서 “‘焚’은 밭을 태우는 것이다(焚, 燒田也。)<sup>83)</sup>”라고 하였다.

『說文』에는 “‘焚’로 “火와 𣎵을 따르고 𣎵는 소리도 나타낸다(從火𣎵, 𣎵亦聲)<sup>84)</sup>”고 하였으나, 段玉裁가 『玉篇』과 『廣韻』을 근거로 從火林로 바로

81) 徐中舒(1989), 같은 책, 396쪽.

82) 馬王堆(Mǎwángduī)는 중화인민공화국 후난 성 창사 시에 있는 고고학적 유적지이다. 안장 모양의 두 개의 언덕에 서한의 무덤 3개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무덤은 장사국의 승상인 대후 이창, 그의 처와 아들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적지는 1972년~1974년에 발굴되었고, 대부분의 유물은 후난 성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83) 許慎(2013), 같은 책, 208쪽.

잡고, 자형도 지금의 ‘焚’으로 고쳤다. 『韓非子·難一』에서도 ‘焚’을 “삼림을 태워 짐승을 잡다(焚林而田。)”라고 하였다.

갑골문 자형을 보면 ‘焚’은 ‘林’과 ‘火’로 구성되어, 山林을 불로 태우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山林에 불을 내어 짐승을 잡는 방법으로 일종의 대규모 수렵의 방법이다<sup>85)</sup>. ‘焚’은 상고 시기 조상들의 풍습을 반영하는 한자로 상고시대에 주된 노동은 채집이었고, 사회 생산은 수렵을 통해 짐승을 얻는 것이었다.

고전 문헌에는 수렵에 관한 기록이 많은데 『詩經』의 「車攻」, 「吉日」에는 주왕이 수렵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고대 수렵의 방법은 최소한 세 가지로 ‘射殺’, ‘網捕’, ‘火田’인데, 세 번째 방식인 ‘화전(火田)’이 ‘焚’자에 반영되어 있다<sup>86)</sup>. 사회가 발전하고 진보하면서 씨족 사회 경제의 수렵이 생산 활동에서 목축업 경제로 넘어가고, 농업 생산은 단순한 채집 노동을 대신하여 경작이 출현하였다. 화전의 풍습은 경작에 유리한 데, 즉 먼저 화전하고 나서 경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작의 방식은 나무를 베고 가시를 제거하는 노동을 줄이고 발농사의 비료를 축적할 수 있게 하였는데, 후대에 도경화종(刀耕火種)<sup>87)</sup>으로 불리었다. 중국 건국 이후에도 이러한 풍습은 여전히 운남 변방의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현지 사람들을 ‘燒荒’이라고 부르고, 불태운 뒤 경작하는 지역을 ‘火燒地’라고 부른다.

이를 종합해보면, ‘焚’자는 불로 산을 태우고 짐승을 내몰아 수렵하는 화전의 수렵 방식을 반영하는 한자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화전의 수렵 방식은 인류가 농업을 시작한 이후로 경작에도 이용되었다. 즉 ‘焚’자는 수렵 문화와 농경문화의 교차점에 존재하는 문화 양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84) 許慎(2013), 같은 책, 208쪽.

85) 李義活(2003), 같은 책, 23쪽.

86) 李萬春(1992), 같은 책, 56-57쪽.

87) 山地(산지)의 숲을 베어 이를 불사르고 그 자리에 곡식의 씨를 뿌림. (李萬春(1992), 같은 책, 56-57쪽.)

#### 4. 결어

본 논문은 어렵 도구를 나타내는 한자 8자와 어렵 방법을 나타내는 한자 10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자형과 자의를 분석하고, 문화적 의미를 탐구한 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어렵 도구와 관련된 한자 网, 弓, 矢, 射, 侯, 函, 單, 禽의 분석을 통해서 고대에 어렵 활동은 어렵 대상에 따라 각각 그물, 활과 화살, 돌창, 특수 수렵 도구 등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렵 방법과 관련된 한자 漁, 隼, 翟, 阱, 獸, 逐, 敢, 離, 隸, 焚의 분석을 통해 ‘漁’는 그물을 이용한 어로, ‘隼’는 그물을 이용한 날짐승의 수렵, ‘離’는 수렵 도구를 이용한 날짐승의 수렵, ‘阱’는 함정 포위 수렵, ‘獸’은 특수 도구 수렵, ‘逐’과 ‘隸’는 추격과 포위 수렵, ‘敢’은 나무 몽둥이를 이용한 수렵, ‘焚’은 화전 방식의 수렵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렵 방법과 관련된 한자들은 어렵 대상과 도구가 자형에 포함되어 구체적인 어렵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고대 중국의 어렵 도구와 방식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어렵과 관련된 고대 중국인들의 지혜와 인식이 한자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한자는 하나의 문화사를 형성하고 있으며, 고고학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한자에 반영된 문화의 각 방면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 參考文獻

- 김경일, 『갑골문이야기』, 서울: 바다출판사, 1999
- Cecilia Lindqvist(김하림·하영삼 역), 『한자왕국』, 서울: 청년사, 2002
- Benjamin I. Schwartz(나성 역), 『중국 고대사상의 세계』, 서울: 살림출판사, 1996
- 韓鑾堂(문준혜 역), 『한자문화』, 서울: 역락, 2005
- 박흥수·남종호, 「漢字文化學試論」, 『中國言語研究』 第12輯, 2000
- 신영자, 『갑골문의 비밀』, 서울: 도서출판 문, 2011
- 李義活, 「『甲骨文合集』의 狩獵에 관한 主要卜辭 考釋」, 『中國語文學』 第41輯, 2003
- 이충구 외 역, 『爾雅注疏 5』, 서울: 소명출판, 2004
- 胡朴安(임진호 외 역), 『문자학의 원류와 발전』, 서울: 문현, 2013
- 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 『미술대사전(용어편)』, 한국사전연구사, 1998
- 董蓮池, 『金文編校補』, 長春: 東北師範大學, 1995
- 何九盈 等, 『中國文化大觀』, 北京: 北京大學出版, 1995
- 何九盈 等, 「簡論漢字文化學」, 『北京大學學報』 第6期, 1995
-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 『漢語大字典(縮印本)』,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湖北辭書出版社, 1993
- 季旭昇, 『說文新證(上)』, 臺北: 藝文印書館, 2004
- 季旭昇, 『說文新證(下)』, 臺北: 藝文印書館, 2004
- 勵兵, 『漢字字形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04
- 李萬春, 『漢字與民俗』, 雲南: 雲南教育出版社, 1992
- 劉釗、洪颺、張新俊編纂, 『新甲骨文編』,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2009
- 劉志成, 『漢字與華夏文化』, 四川: 巴蜀書社, 1995
- 劉志基, 『漢字與古代人生風俗』, 華東師範大學中青年學術著作出版基金會, 1993
- 馬如森, 『殷墟甲骨文引論』, 長春: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91
- 馬如森, 『殷墟甲骨文』, 上海: 上海大學出版社, 2007

- 容 庚,『金文編(修訂四版)』,北京:中華書局,1985
- 沈兼士,『沈兼士學術論文集』,北京:中華書局,1986
- 滕壬生,『楚系簡帛文字編』,武漢:湖北教育出版社,1995
- 滕壬生,『楚系簡帛文字編』(增訂本),武漢:湖北教育出版社,2008
- 許進雄,『中國古代社會』,臺灣:臺灣商務印書館,1995
- 徐中舒,『遠東 漢語大字典』(全八冊),臺北:遠東圖書公司,1991
- 徐中舒,『甲骨文字典』,成都:四川辭書出版社,1989
- 徐中舒,『漢語古文字字形表』,成都:四川人民出版,1980
- 許 慎,『說文解字』,北京:中華書局,2013
- 王 寧等,『「說文解字」與古代文化』,沈陽:遼寧人民出版社,2000
- 楊家駱,『說文解字詁林正補合編』(全十二冊),臺北:鼎文書局,1994
- 趙 誠,『「甲骨文」與古代文化』,沈陽:遼寧人民出版社,2000
- 臧克和 主編,劉志基 著,『漢字文化總論』,廣西:廣西教育出版社,1996
- [www.sjnmuseum.go.kr\(식장리 박물관\)](http://www.sjnmuseum.go.kr(식장리 박물관))
- [www.flight-toys.com/bolas.htm\(238\)](http://www.flight-toys.com/bolas.htm(238))

Abstract

A Study on the ancient Chinese fishing and hunting through Hanzi

Park, Heung-soo · Ko, Eun-mi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ancient Chinese fishing and hunting culture through Chinese characters. There are 18 Chinese words that related to fishing and hunting, this paper classified them by tool and method. After that, analyzed the shape if character and cultural meaning.

网, 弓, 矢, 射, 侯, 函, 單, 禽, the meaning of this 8 Chinese words is related to tool of fishing and hunting, 漁, 隻, 罝, 阱, 獸, 逐, 敢, 離, 隸, 焚, the meaning of this 10 Chinese words is related to method of fishing and hunting.

Through the analysis of individual Chinese characters, the paper found that ancient people how to fish, hunt and cultural meaning.

Key words : Chinese character(Hanzi), Chinese character with culture, Fishing and hunting, fishing and hunting culture

투 고 일 : 2016. 9. 10. / 심 사 일 : 2016. 9. 15. ~ 2016. 10. 15. / 게재확정일 : 2016. 10. 16.